저는 31살 아기엄마입니다

저는 31살 아기엄마입니다... 아기를 낳아 제 아기를 중환자실에 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23살... 어린이집 실습 후 폐렴이 심하게 걸려 기존 입원하던 병원에서 낫지 않아 더 큰 병원에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몸에 전깃줄을 꼽고...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울 힘도 없어 약에 의존하다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누워 움직임이 없으시고 그 옆에는 수혈을 하는 아저씨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꿈인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제 옆, 침대에 머리가 하얗고 웃음이 예쁘신 할머니가 있으셨는데 그런 제가 안쓰러운지 "아가...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지 한술만 들어봐"하며 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인자했던 얼굴이 잊히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던 할머니셨는데... 그 날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 모든 간호사가 그 할머니에게 가 있고 저는 침대 사이로 할머니가... 눈을 감고 간호사가 아무리 호명해도...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눈을 뜨지 않는 할머니를 바라만 보며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저에게 밥을 권하시던 할머니께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시고 말도 없으셨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위로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처음 보고...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들어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약에 취해 다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뒷날 간호사분께 펜을 빌려 옆에 있던 책에... 유서를 적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많이 무서웠습니다. 이곳에서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나도 잘못될까... 꾸역꾸역 글자를 적어나갔습니다. 그 후 먹기 싫은 밥도 토가 나오려고 해도 먹고 주사도 약도 뭐든 마음을 먹고 맞았던 거 같습니다. 보름 동안... 그 안에선 삶과 죽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던 건 새벽마다 죽을지 모른다는 암담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지만 기다려준 우리 가족과... 그 안에서... 제가 외롭지 않게 손을 늘잡아주시던 간호사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제가 어리다 보니 정말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중환자실을 나가는 침대에서도 그 간호사분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일반 병실에 가서도 먹을게 생기면 중환자실 앞에 서성이다가 그분들께 드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중환자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갈 일 없을 줄 알았던 중환자실은 제가 30살 임신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산모실... 산모들의 중환자실이죠... 임신중독으로 하혈하기까지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기는 28주... 버텨보자 하셨지만 높아지는 혈압에 폐에 물이 차고 무엇보다 아기의 태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28주 3일이 되는 날... 응급으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몸을 끌고 나서니.. 신생아 집중치료실... 너무 슬픈 단어였습니다. 신생아와 중환자실이라는 글자가... 세상이 무너지도록 슬펐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니... 제가 겪었던 삶과 죽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망스러워 한없이 아기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50그램의 몸으로... 버티고 있는 제 아기가... 어쩌다 이 중환자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몸이지만 아기 앞에 서서 울고만 있으니 간호사분이 오셔서 "아기가 다 느낀다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기도 힘들다"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이 엄마였습니다.

아직도 아기는 니큐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7일이지만 아직도 제 품에 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아기 면회를 다니며 무너질 때마다 같이 울어주고 웃어 준 간호사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같이 몸이 좋지 않아 들어오는 아기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도... 아기가 잘 견뎌내고 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도... 잊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버티기 힘든 107일 동안...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는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환자가 되어 보았고... 저희 딸도 중환자가 되어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중환자실이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생명이 모여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 보호 아래 온 힘을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듯 제 아기도 잘 버텨 제 품에 오길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름만으로도 무서운 곳이지만 저 역시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속에는 사랑도 있고 온기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환자분들께서 힘내셔서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